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원광대병원, 현판 제막식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던 제3주기 의료 기관 평가 인증획득 현판 제막식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학교법인 허종규 원광학원 이사장, 상임이사 김순익, 박맹수 원광대학교총장, 윤권하 원광대학교 병원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래동 1관에서 인증획득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대강당으로 이동 기념 행사를 열었다.

원광대병원은 제3주기 인증평가 당시 총 6명의 조사위원이 나흘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한 기본 가치체계와 환자 진료체계, 경영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감염 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의료 정보관리 등 병원 전 부문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였다.

의료 기관 인증 평가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도입한 평가다.

원광대병원은 2015년 제2주기 인증 평가 항목 530개가 제3주기 평가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항목과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 항목이 강화 된 515개 항목을 우수한 내용으로 통과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3일 외래동 1관에서 인증획득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윤권하 원광대학교 병원장은 "의료 기관 인증평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준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히고 "인증 평가가 보여주는 전시 행정에 머문 평가가 아니고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지역을 넘어, 국가를 넘어,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내 보건인 800여명, 진안에서 화합 다지기"

문예체육회관서 보건의 날 소통 한마당

전북도 보건인들의 화합한마당 행사인 '제47회 보건의 날 소통 한마당 행사'가 4일 도내 14개 시·군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4월 7일 보건의 날은 국민 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예방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행복'이라는 주제로 진안에서 처음 행사를 가졌다.

입장식을 시작으로 금척무, 연극 등 식전공연, 개막퍼포먼스, 대동놀이한마당,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폐회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주민 건강관리와 보건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성을경 진안보건소장은 "앞으로 더 소통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사 내방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결 혼

▲김승훈(김학운 전 임실군청 퇴직공무원·유종녀씨 아들)군·이유림(이창수·안순자씨 딸)양= 일시: 6일(토) 낮 12시 40분, 장소: 아름다운컨벤션웨딩 1층 콜리스타홀

▲손찬우(임실군청 행정지원실 근무, 윤순임씨 차남)군·조하은(조철희·이미경씨 차녀)양= 일시: 6일(토) 오전 10시 40분, 장소: 오콜리스(구 웨딩캐슬) 1층 시크릿 가든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고창경찰 모양지구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대장 정한성)는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모양지구대는 이달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고 총포소지허가 미갱신과 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학교, 임실호국원을 찾아 나무심기 행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구성원들이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임실호국원을 찾아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매년 식목일 즈음에 캠퍼스에 나무를 해 왔던 전북대가 지역과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대학 밖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날 식목행사는 지난 3월 26일 전북대와 국립임실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국립묘지 1사1묘역 가꾸기 협약'을 한 데 따른 것. 이번 식목행사가 전북대와 임실호국원 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대는 현충탑 참배와 결연묘역 환경정화, 한 송기 헌화 운동 등 다양한 국립묘지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구성원은 호국원 내에 은행나무와 편백나무 등을 심고, 묘역 환경 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최용건씨, 영상학 춘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전북대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영상의학과 최용건 방사선사가 최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19년 대한영상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는 영상의학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해마다 800명 이상의 방사선사, 연구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내학술대회이다.

최 방사선사는 이번 춘계학회에서 'Portable X-ray 단순흉부검사 시 실시간 적외선 거리측정기 유용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논문은 Portable X-ray 단순흉부검사 시 자가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적외선 거리 측정기를 개발·이용하여, 환자호흡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해 검사자에게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 조사시점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개발·제작한 실시간 적외선 거리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중환자실 및 응급실 등의 자가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의 호흡에 대한 정보를 검사 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동시에, 환자호흡에 대한 정보를 검사 전에 측정 및 평균화 하여 검사자가 검사 하고자 하는 환자 호흡에 대한 정보, 즉 환자가 최대흡기 시의 값을 제시해 검사 자에게 환자마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검사 기준 값을 제시했다.

학회에서는 실시간 적외선 거리 측정기를 사용이 진단적 영역의 확장 및 재검사율을 낮출 수 있어 자가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의 검사에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고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경찰, 자율방범연합회 방범대원과 벚꽃축제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지역 내 자율방범연합회 방범대원들과 함께 벚꽃축제가 한창인 사정동 월명체육관에서 합동 순찰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말부터 2019년 월명 벚꽃축제가 막을 올리면서 봄맞이 나들이 객들이 몰리고 있어 범죄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무질서 속에서 범죄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제 초기에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상엽 서장은 "벚꽃놀이 나들이객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무질서와 범죄예방을 위해 모든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최근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시민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